

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[프린트하기](#)

✕

尹 없는 지지모임 '공정과 상식' 공식 발족

기사입력 2021.05.21 11:26 최종수정 2021.05.21 11:26

윤석열과 직접적 접촉 없지만

평생 스승 송상현 관련

추후 연대 가능성 열려 있어



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인 '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(공정과 상식)'이 21일 오전 출범했다.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'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'를 주제로 축하 강연을 하고 있다. [이미지출처=연합뉴스]

[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, 박준이 기자]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'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(공정과상식)'이 21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. 창립식과 토론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은 "윤 전 총장의 정치 도전을 격려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정권 교체 위한 실질적 방법을 위한 모임과 네트워크 구성하겠다"고 밝혔다. 이 모임 상임대표는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(전 한국법학교수회장)이 맡았다. 그는 "선진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디딤돌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"는 발족 취지를 밝혔다.